

지역 소식통

고창군, 한파 대비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고창군보건소가 건강한 겨울 나기를 위해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경제적 취약계층 등 1500여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한파대비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4명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에 방한용품(보온용 목도리, 덧신)을 제공한다. 경로당을 방문해 한파시 유의할 건강수칙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를 통해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겨울철 추운날씨에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에서는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균형잡힌 식사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파 주의보·특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외출 시에는 체온유지를 위해 가벼운 옷을 여러벌 겹쳐 입는 것을 알리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행안면, 마을복지 계획수립 선포식 개최

지난 11일 행안면사무소에서 마을대표 주민들과 행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인환) 위원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면마을복지계획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 3월부터 추진된 마을복지계획은 총 7회에 걸쳐 워크숍 및 과제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수립되었다.

이날 이인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선정한 8개의 마을복지세부사업을 선포하고, 세부 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행복애 우리마을!! 사랑애 우리마을!!’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8개의 마을복지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며 “특히 새롭게 도전하는 행복애 효과라디오 배달사업과 사랑애 프리마켓, 사랑애 원데이 클래스 운영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 고인돌유적 조사 완료

## 올해 신규 고인돌 5기, 고인돌 하부구조 추정 석관 1기 등 확인

올해 고창군이 우리나라 유일의 선사시대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에 대한 2023년 시굴조사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창 고인돌유적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조사와 고인돌 개별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 파악 및 보존정비를 위한 학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면적 12만6000㎡에 대한 조사다.



고창군 고인돌유적 시굴조사 전경 (사진=고창군 제공)

신규 고인돌 5기, 석곽 1기, 석관 1기, 석실 1기, 석렬 10기, 구상유구 11기, 수혈 15기, 소성유구 2기, 토광묘 2기, 배수로 1기 등 다수의 유구가 최종 확인됐다.

특히 신규 발견된 고인돌 3기는 기존 군집과 떨어져 해발이 높은 지점에서 위치하여 새로운 고인돌 열(列)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2기는 기존 고인돌 열(列)과 같은 선상에 위치하여 조사지역 밖의 남쪽으로 고인돌이 추가 분포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과거에 존재했던 구하도(龜河道)가 3코스 중앙을 가로질러 고창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인돌이 구하도의 가장자리를 따라 분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고인돌 축조 당시의 고지형을 추정 복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고창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고병원성 차단 총력

## 철새도래지 낚시 금지·가금농장 출입 자제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정읍시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만경강 야생조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지난 1일 재난위기 심각단계가 발령됐다. 이후 전남 고흥과 무안, 익산과 김제, 충남 아산에서 확진되면서 확산추세에 있다.

지난 4일 영과동 천변에서 포획된 원앙오리에서도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시는 검출지 인근에 통제초소를 설치, 사람과 차량을 통제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읍에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3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70여여명의 피해를 입은 만큼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철새도래지에서 낚시를 자제하고, 가금농장 출입과 가금사육 농가의 모임 또한 자제해야 한다.

또한 가금 사육농가는 시에서 배부한 방역소독약품으로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외부인·차량 출입 시 철저한 소독, 축사 내 정음잡화 착용 등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학수 시장은 “사람에 의한 AI 농장 전파는 시민의 선진적인 방역의식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철저한 소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개최

부안군은 지난 11일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군수 공약사업 80건에 대한 2023년도 공약이행상황을 점검했으며, 9건의 공약 변경안을 심의했다.

부안군 공약이행평가단은 2022년 11월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 신청자 중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발되었으며, 지역경제, 지역경제, 문화관광, 교육복지 4개 분야로 나뉘어 각 분야별 분임장과 일반위원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공약이행 상황 평가는 분과별로 나누어 각 세부사업의 당초계획 이행여부, 사업 진척도, 사업비 확보 현황, 집행비율 등 각 부서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와 각 공약담당 팀장의 설명,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진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역경제 분야에서 위원들은 부안터미널 종합정비사업과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어 침체된 터미널 주변의 상권과 부안을 주민들의 생활권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새만금 캘린지 테마파크 조성 공약이, 지난 11월에 착공식이 있었으며, 새만금에 차별화된 명품관광지가 조성된다면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보였다.

공약 변경안 9건은 부안형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등으로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등을 심의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전북과학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MOU

## 내년 1월부터 5년간 안전 지도

정읍시는 12일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10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민간위탁 기관을 공개모집했다. 응모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 결과 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이 재선정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간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유치원·청소년시설·노인요양복지시설 등의 급식 안전지도와 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대상별 맞춤형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특화사업 등도 맡는다.



정읍시-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 업무협약 체결 모습

소회경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과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민정원사, 손 뜨개질 봉사 '눈길'

정읍시민정원사 30여명의 교육생들이 가로수에 색동옷을 입히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겨울 동안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취지로 이어지고 있다.

설날을 주제로 한 색동옷은 회원들이 일일이 뜨개질해 제작한 작품들이다. 매년 세탁 후 다시 길고 늘려 나무에 옷을 입혀주는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는 연지아트홀(29본), 수성사거리(23본), 정읍사공원(19본) 등 총 3곳에서 가로수 색동옷 입히기 작업이 진행됐다. 색동옷 입히기는 나무도 사람처럼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시민정원사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색동옷들은 겨울철 가로수들을 따뜻하게 감싸며,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민정원사들이 가로수에 색동옷을 입히는 모습

# 부안군의회 예결특위, 내년 예산안 심사 마무리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래)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4일 제34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예산 국제 도지박람회 참가, 정일 주동선 정비공사, 통합관리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등 20개 사업에 대해 61억원을 삭감·수정한 8,018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년 예산 7,539억원보다 479억원 증액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부안군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삭감액을 최소화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재원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의 적법성, 적정성, 건전성, 효율성을 판단하고 심사하였다”며, “편성된 예산이 군민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고품위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의 투자효과가 미흡할때는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항상 군민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것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